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 김향기의 비밀 이중생활 발각! 차학연 “내가 왜 주인공이 아니지?” 반전을 거듭하는 파격 전개!

2026. 4. 27.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감독: 이태곤, 김준형 | 출연: 김향기, 차학연, 김재현, 손정혁, 김동규 | 제공: 쿠팡플레이 | 제작: 풍년전파상, 보더리스필름 | 공동제작: Mediacorp)이 지난 24일(금) 5-6화를 공개하며 위기와 웃음을 오가는 예측 불가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은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던 여고생이 현실에서 그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하이틴 시리즈.

공개된 5화에서는 ‘의주’(김향기)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우수’(차학연)에게 들통나며, 연재 시작 단 2화 만에 중단 위기에 몰린 웃픈 긴장감이 폭발했다. 특히 노트북을 사수하려는 ‘의주’와 노트북 속 비밀을 확인하려는 ‘우수’의 숨 막히는 대치는 코믹함과 아찔함을 오가며 시청자들에게 아슬아슬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어진 6화에서는 ‘의주’의 수난이 본격화됐다. 이중생활의 정체가 탄로 난 위기 상황에서 “선생님들 케미가 너무 좋아서요!”라며 내뿜은 다급한 변명은 발칙한 웃음을 더하는 동시에 상황을 걸잡을 수 없이 꼬이게 만들었다.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던 ‘우수’는 결국 소설을 지우거나 ‘사전 검수’라는 통보를 내리며 ‘의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소설을 확인한 ‘우수’의 태도였다. 화를 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라며 주인공 자리를 강탈하며 관계 구도를 직접 뒤흔들기 시작했다. 소설 속 주인공 ‘강태하’(손정혁)의 대사를 빼앗아 ‘최윤’(김동규)을 향해 “앞으로 난 최윤 한정 개새끼가 될 거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웃음을 유발하는 레전드 장면으로 등극했다. ‘우수’, ‘기전’(손정혁), ‘동주’(김동규)의 삼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소설 <우린 친구였어>의 전개 역시 한층 파격적인 재미를 예고한다.

한편, 유쾌한 소동극 속에서도 묵직한 궁금증을 남기는 복선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림여고 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다큐 촬영을 ‘우수’가 단칼에 거절하며 의문을 자아낸 것. 평소 완벽해 보이던 그가 감추고 있는 사연이 무엇일지, 이 비밀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킹받는’ 하이틴 코미디의 등장으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열렬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